

전북도 핵심정책 성과창출 총력

도정 결실 극대화 위해 성과관리 추진

전북도는 주요 핵심정책에 대한 성과창출과 도정 결실을 극대화하고 우수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진화 사례로 발전할 수 있는 성과관리(성과관리(BSC))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성과관리(BSC) 추진을 위해 새천년도약 10대 핵심프로젝트, 성과계약과제(300여개), 공약사업(123개) 등 도정 핵심업무를 BSC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추진성과를 성과평가에 반영하

여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함으로써 성과창출을 도모한다.

그동안 운영해온 BSC 가점제도를 대폭 확대,정비하여 BSC 가점이 도정 핵심 업무의 성과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새로이 신설된 BSC 가점제도는 새천년 도약 10대 핵심프로젝트 분야가점으로, 새천년 도약 10대 핵심프로젝트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한 최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부서가점(0.05점)을 부여하고 담당자에게도 개인가점(0.3점)을 부여한다.

또한 공직사회 워라밸(Work-Life Balance) 문화 확산 기초에 맞추어 유연근무제를 확대 실시하고 연가일수 조정(7일→10일), 청렴교육 의무이수시간을 확대(2시간→5시간)하는 등 직원 의견수렴을 통해 부서공통지표를 정비할 계획이다.

부서가점만을 부여해 온 '이달의 으뜸도정상'도 올해부터는 개인가점(0.3점)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성과관리를 통해 도정 핵

심정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성과창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정책 혁신노력이 전 직원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으로 도정의 성과를 극대화시키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병관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정 활력을 위한 성과관리를 추진함으로써 도정 핵심업무에 대한 성과창출을 도모하겠다"며, "도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최저임금 보완대책 관련 소상공인 간담회 22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보완대책 관련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최중구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업은행, 여신금융협회, 소상공인단체 협회 등의 단체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카드수수료 경감방안이 논의됐다.

전북, 서민 경제적 자립 돕는다

행안부 '서민금융복지센터 지원사업' 공모 최종 선정

전북도는 22일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2018년 서민금융복지센터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금융 상담이 지원되지 않는 소외지역 중심으로 금융 및 복지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채무근절 및 자활가능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북도는 2018년 1월

전국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서민금융복지센터 지원사업은 국비 5억원을 지원받아 2018년 3월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추진한다.

전북도에서는 최근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 국제금리 인상 등 금융환

경 변화에 따라 금융취약계층들이 불법 사금융시장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이번 서민금융복지센터 지원사업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상황에 맞게 채무조정, 재무상담, 복지연계 등 실질적인 자립 지원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했다.

서민금융복지센터의 주요업무는 재

무상담 등을 통해 영세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을 감소시키고 영세 소상공인 채무불이행자 축소 및 번제율을 높일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부실채권 소각을 통해 사회생활 및 경제활동 회복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도 나석훈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전북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려 제정을 통해 가계부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신용회복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민들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입학금은 내리고 수업료는 동결

전주대, 학부모 경제적 부담감 완화 20% 인하

전주대학교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학금을 인하하고 수업료를 동결했다.

22일 전주대에 따르면 2018학년도 입학금을 20% 인하하고, 수업료 또한 4년 연속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전주대의 올해 신입생 입학금은 57만원에서 45만 6000원으로 결정됐다.

수업료는 신입의 경우 인문계 302

만원, 이공계 394만5000원이며 모든 학년의 수업료도 지난 2014년부터 동결된 금액으로 확정했다.

전주대 이근호 기획처장은 "최저 입학금을 20% 인하하고, 수업료 또한 4년 연속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전주대의 올해 신입생 입학금은 57만원에서 45만 6000원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도내 심폐소생 환자 2013년 보다 3.5배 증가

심정지 응급환자 1000여명 중 10% 가량 심장 다시 뛰어

전북지역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심정지 응급환자는 996명으로 이 중 98명이 병원에 도착해 심장이 다시 뛰었다.

이는 지난 2013년 대비 3.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심정지 환자가 심폐소생술로 소생한 인원은 2013년 27명, 2014년 41명, 2015년 50명, 2016년 65명, 지난해 98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심폐소생률이 증가한 이유로는 ▲구급대 2인에서 3인으로 확대 운영 ▲전문구급장비 확대 보급 ▲농어촌 지역 신규 구급차 지속 증차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펌블런스 출동시스템 강화 등이 꼽힌다.

백성기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은 "구급대원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와 심정지 생존율 향상을 위한 도전과제를 발굴하고 도입하는 등 구급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이상민 기자

"진정한 동네 민주주의 실현 최선"

도선관위, 지방선거 관리대책 시달회의 열어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4층 회의실에서 도위원회 간부 및 구·시·군위원회 사무국(과)장, 지도담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점 관리대책'을 중심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동네' 슬로건 아래 진정한 동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유권자 중심의 완벽한 선거관리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경선거 실현 ▲국민소통 강화 및 범국민적 선거 참여 보장 등 3대 중점 목표를 제시하고 각

분야별 관리대책을 시달하고 논의했다.

특히, 전북선관위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경선거를 위해 선제적인 안내, 예방활동으로 정당, 후보자의 합법적인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비방, 허위사실 공포 등 중대선거범죄와 지역연고단체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동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2018년
戊戌年

謹賀新年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김동수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